



26일 저녁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열린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전에서 4위로 경기를 마친 박태환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아쉽다! 박태환 0.04초차 메달 실패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 4위... 美 라이언 록티 우승

박태환(22·단국대)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4위를 차지하며 0.04초 차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박태환은 26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92로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미국의 라이언 록티가 1분44초44로 금메달을 땀고,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1분44초79)와 세계기록(1분42초00) 보유자인 파울 비더만(독일·1분44초88)이 각각 2, 3위에 올라 은·동메달을 가져갔다.

박태환은 3위 비더만에게 0.04초 뒤져 메달권 밖으로 밀려났다. 지난 24일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땀던 박태환은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남자 자유형 200m 우승까지 노렸지만 초반 격차를 줄이지 못해 결국 메달을 놓쳤다.

이날 자유형 200m 결승에서 6번 레인 출발대에 선 박태환은 출발 반응속도(0.66초)는 8명의 선수 중 가장 빨랐다.

그러나 초반부터치고 나간 경쟁자들에게 밀리기 시작했다.

첫 50m 구간에서는 24초96으로 5위로 처졌고, 100m를 뚫 때는 51초84로 6위까지 밀려났다.

이후 힘을 내 150m 구간을 5위(1분18초57)로 돌고 나서 막판 스피트를 내지만 결국 4번 레인의 야니 아넬(프랑스)을 따라잡는데 그치면서 4위로 터치패드를 찍었다.

록티는 100m 구간까지 3위를 유지하다 이후 니키타 로빈체프(러시아)와 미국 대표 팀 동료인 마이클 펠프스(미국)를 차례로 제치고 1위로 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태환과 록티의 차이는 0.48초였다.

이에 앞서 박태환은 전날 치러진 자유형 200m 준결승에서 1분46초23으로 아넬(1분45초62)에 이어 1조 2위, 1~2조 전체 16명 중 4위를 차지해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진출했다.

한편 박태환은 27일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 출전 종목인 자유형 100m 예선에 나선다. /연합뉴스

‘빨강+검정’ 보기만 해도 겁먹던 그 유니폼 입다

타이거즈 월드 유니폼 데이
이종범 “강렬한 느낌 줬을 것”
KIA 호랑이들 “나도 레전드”

타이거즈의 ‘공포의 검은 바지’가 부활했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무등야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를 갖고 후반기 일정을 시작했다. V11을 목표로 내걸고 후반기를 맞이한 KIA는 빨강 상의, 검정 하의, 검정 헬멧으로 구성된 월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올라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월드 유니폼데이가 치러진 것이다.

낮선 유니폼을 착용하게 된 젊은 선수들에게는 재미있는 이벤트였고, 해태 시절 그라운드를 누볐던 이들에게는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날이 됐다.

KIA 현역 선수 중에서는 이종범·김상훈·유동훈·김상현이 해태 시절 유니폼을 착용했지만 검정바지를 입고 우승의 기쁨을 누린 이는 이종범이 유일하다. 함께 우승을 일구었던 이대진은 지난 23일 웨이버공시를 신청하면서 함께 유니폼을 입을 수 없게 됐다.

이종범은 “검정 바지를 입던 신인 시절에는 우리의 유니폼이 위협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훌륭한 선수들과 대단한 팀에서 야구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래서 상대팀들이나 팬들에게는 강렬한 느낌을 줬을 것 같다”고 말했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6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경기에서 앞서 옛 유니폼을 입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신기할 정도로, 대구에서 여름 경기를 하면 땀으로 바지가 달라붙어서 선수들이 햇볕에 나가 앉았을 수도 없었다”고 옛 시절을 회상했다.

또 “검정바지도 더웠지만 더 큰 문제는 검정 스파이크였다. 한여름에는 발이 너무 뜨거워서 스파이크에 물을 뿌려가면서 야구를 해야 했다”며 당시의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강철 코치는 “이 유니폼을 입고 여름 낮경기에서 완투도 했었다”며 “지금 생각

하면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신기할 정도로, 대구에서 여름 경기를 하면 땀으로 바지가 달라붙어서 선수들이 햇볕에 나가 앉았을 수도 없었다”고 옛 시절을 회상했다.

추억의 유니폼을 어색해 하던 선수들은 단체 촬영을 하면서 잠시 치열한 순위 싸움의 긴장감을 잊었다.

한편 월드 유니폼 데이를 맞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1만2500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올 시즌 15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외국인 투수 로페즈는 새 옷을 선물 받은 아이처럼 취재진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등 해맑게 경기장을 누벼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기도 했다.

추억의 유니폼을 어색해 하던 선수들은 단체 촬영을 하면서 잠시 치열한 순위 싸움의 긴장감을 잊었다.

한편 월드 유니폼 데이를 맞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는 1만2500명의 관중이 찾으면서 올 시즌 15번째 매진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남자들 100승 품을까

브리티시 오픈 내일 개막
험난 코스 공략 승부열쇠

한국여자골프공단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커누스티 골프링크스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00승 달성애 다시 도전한다.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끝난 예비양 마스터스에서 아쉽게 100승 축포를 터뜨리지 못한 한국여자선수들은 28일 스코틀랜드 영거스의 커누스티 링크스에서 시작되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우승컵을 노린다.

1500년대에 만들어진 이 골프장은 지금까지 남자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오픈을 일곱 차례 개최했지만 여자선수들에게 문을 열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브리티시 오픈을 개최했고, 그 대회의 우승컵은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이 가져갔다.

당시 커누스티 링크스 코스는 파71에 전장 7421야드였지만, 이번 여자대회코스는 파72에 6490야드로 전장이 줄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골프코스’의 하나로 꼽히는 이 골프장은 번덕스러운 날씨와 깊은 함아리 벙커가 여자선수들의

실력을 시험하게 된다.

2001년 메이저대회로 승격된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박세리(34)가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 장정(31), 2008년 신지애(23·미래에셋)가 차례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당시에는 그러나 험악한 링크스 코스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국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링크스 코스에서 경험이 많은 선수가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박세리는 2003년 링크스 코스에서 열린 LPGA 투어 대회에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에 1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링크스 코스 경험이 풍부하다.

박세리는 예비양 마스터스가 끝난 뒤 “통산 100승의 이정표를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직접 쓰고 싶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대회에는 박세리와 신지애, 최나연(24·SK텔레콤) 외에 올해 예비양 마스터스에서 공동 3위에 오른 김인경(23·하나금융그룹) 등 총 35명의 한국 선수(재미교포 포함)가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15위권과 LPGA 투어 상급랭킹 50위 이내 선수를 포함해 정상급 여자 골퍼 144명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실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카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